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燃料價格의 調節問題

一

冬節需要期를 앞두고 生活必需品中 重大한것의 하나인 燃料 即 石炭, 煉炭, 長斫, 木炭等의 價格昂騰은 銃後生活安定에 重大한 威脅을 느끼게하야 巷間에는 벌서부터 速히 價格을 抑制하라는 要望이 높아지고잇던 이지음 朝鮮物價委員會에서는 專門委員會第四部인 燃料物價委員會를 四日 總督府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燃料價格騰貴抑制策에 對한協議를 거듭한結果 于先 石炭 煉炭, 木炭等 各分科會를 두어 分科會에서 愼重한調査와 審議를 하기로 되엿다하니 머지안하야 適當한公定價格이 決定되야 一般의企待에 어그러짐이업슬것을 밋는바이어니와 이機會에 際하야 吾人은 若干의 意見을 述하야 燃料價格의 徹底的引下를 主張하려하는바이다.

二

大體로 物價昂騰을 抑制하게 되는所以는 天井不知로 昂騰하는 物價를 放任하여서는 銃後國民生活이 不安定하게되야 到底히 長期抗戰을 繼續할수업슬 뿐만아니라 聖戰의 目的을 貫徹하기 困難한點에 잇는것으로 銃後生活의 安定을 爲하야 昨年末以來 當局에서는 暴利取締令을 數次改正하며 正札制度를 强制하고 買惜買占을 取締하여왓스나 이것만으로는 到底히 昂騰되는 物價를 抑制할수 업스므로 드듸여 物價委員會를 設置하야 物價의 公定價格을 決定함으로써 人爲的으로 物價를 引下식혀 事變前物價水準과 比等케하려는것임은 周知하는事實이다. 이와가티 物價抑制는 銃後國民生活安定과 長期抗戰對策 두가지 點으로보아 반다시 實行하여야만될 一大國策으로서 이精神에 비추어 보아도 生活必需品中 食糧과 對等한 地位에잇는 燃料의價格은 徹底히 抑制하여야만 할것으로 多少의 無理와 事情이 잇더라도 이를눌리치고 大幅的 引下를하야 國策에 副도록 할것이다.

三

石炭, 煉炭, 長斫等 燃料價格은 事變以後 一路昂騰에 昂騰을 繼續할뿐으로 石炭은 事變前一噸에 十八圓五十錢하던 撫順炭이 現在二十五圓四十錢으로 十七圓五十錢하던 咸興炭이 二十九圓五十錢으로 올랏스며 煉炭은 二十圓六十錢하든官印煉炭이 二十二圓七十五錢으로 올랏고 長斫은 百貫에 五圓하든것이 九圓으로올러서 長斫은 約八割五分 石炭은 約四割以上올른셈이다 이것을 現在 단번에 事變前時勢로 還元시키기는 困難할것이나 最少限度 一割以上은 引下하면 引下할수 잇을것인데 輸移入炭價格關係로 보아 現時勢以下로 石炭公定價格을 決定하기 困難하다는 說이 들리니 이것이 事實이라면 公定價格決定이 오히려 石炭價昂騰을 公認하는 結果가 되지 안흘가하는 憂慮도 업지 안흘수업다.

四

都市生活者에 잇서서는 石炭, 煉炭, 木炭보다도 長斫의需要가 第一만코 또昂騰率로 보더라도 長斫價가 第一만히 昂騰되엿슴에 不拘하고 物價委員會에서는 長斫의 公定價格을 制定치안코 暴利取締令을 發動하야 時勢를 抑制할것이라하니 아직確定된것은 아님으로 여러말은 避하거니와 長斫에도 公定價格을 制定함이 煩雜스러운 取締令適用보다 業者를爲해서나 消費者를 爲해서나 良策이아닐가한다 公定價格을決定하거나 또는暴利取締令을 適用하거나 如何튼 當面된 燃料問題는 生活上重大問題이요 旣往抑制策을쓰는以上 徹底히 大幅的引下를 꾀하도록하기를바라 마지안는바이다.

勝湖 票 年釀造高八万石

武漢防衛敵大動脈 京漢線遮斷切迫

我快速部隊〇〇에肉薄

【〇〇六日發同盟】敵의 大動脈인 京漢線南端遮斷은 바야흐로 目睫에 切迫되엿다 即〇〇을 出發한 我〇〇部隊는 그快速을 利用하야 어미 〇〇南方京漢線에 肉薄中으로 그遮斷은 六日夜中에 될것으로 보연다 어리하야 武漢三鎭은 北으로 京漢線을 南으로 粵漢線을 脅威바뎌 바야흐로

皇軍의 蹂躪을 기대릴뿐으로 되엿다

陸荒鷲群空爆으로 信陽北門에大火災

【北京六日發同盟】五日午前八時 原田部隊長이 指揮하는 栗原、酒本兩部隊의 〇〇機는 京漢線信陽을 爆擊하기爲하야勇躍 〇〇基地를出發 同正午때 同地上空에 達하야 原田部隊는 市街東南地區를·酒本部隊는 北方城壁附近米國人女學校를 避하야 西北地區를 各各爆擊한結果 同市街東南方에잇는 兵營及 旅團司令部는 粉碎되고 또北門附近은 火災를 이르켯다 我全機는 無事歸還하엿다

羅山上空空中戰서 敵機二臺를擊墜!

【〇〇六日發同盟】信陽方面에의 我進擊을 阻止코저 無謀하게도 敵은 〇〇에 亘하야 羅山附近에來襲하고잇는데 或은새벽에或은구름을利用 飛來하엿다가 雲間으로 逃亡함으로 我陸荒鷲는 그때마다 이를노첫는바 드듸어六日午前好機가到來하야 七時頃 我岡本中尉機를 先頭로한 新谷軍曹機伊藤曹長機二機는羅山上空에 飛來한敵S·B機七臺와 正面으로遭遇하야 逃亡하려는敵을追擊, 壯烈한 空中戰을展開하엿는데 敵은多數機을밋고 我方에反擊하여 二機를向하야 機銃을亂射하엿다 伊藤機는 勇敢하게도敵編隊陣의한복판으로 突入하야 敵의機銃의猛射를바더 一發은 伊藤曹長機의照準眼鏡에命中하야 曹長은危險하게보엿스나 무슨奇蹟인지眼鏡만이두쪽으로 깨여젓을뿐으로 幸히 無事하게戰鬪를 繼續하야 이空中戰에서 我二機는 敵一機를 確實히擊墜하야 敵의心膽을 서늘하게하고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伊藤機는左翼에二發 右翼에三發胴體에一發의 彈痕을바덧다

師河敵陣을猛攻擊

【〇〇六日發同盟】羅山附近으로부터 西進信陽에 向하야 進擊中인 〇〇部隊의 一部는 五日午後七時信陽前面陣地인 櫻干舖를 占領, 六日朝來·다시西進하야 師河(信陽東方六里)의 敵陣을 攻擊中이다

海荒鷲群爆擊狀況

【九江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六日午正發表

一、十月五日陸軍部隊와 共同으로 馬鞍山을攻略한 海軍陸戰隊는 更히陸軍部隊와함께 그西北方江岸에沿하야 山岳地帶를進擊하야 夕陽에余家濟、馬家濟의 線에進出하엿다 我海軍航空部隊와 江上艦艇은 果敢한 爆擊과有効한 射擊으로

馬鞍山攻略部隊 黃金山陣地占領

武漢防衛堅陣全部潰滅

二、陸上 進擊을推進시켯다

三、陸上戰鬪에 策應하야 掃海部隊는 四日에急進하야 五日도 彈雨를무릅쓰고 敵前掃海를敢行 揚子江水路啓開는 層進捗을보앗다

三、海軍航空隊는 前揭陸戰에協

【陳家祠六日同盟特派員發】江上進擊部隊와 協力하고잇는 秋富部隊는 五日馬鞍山要塞占領後更히 戰果를擴大하야 同日夕刻敵의 野砲陣地인 黃金山(馬鞍山西北方四키로)을 占領하엿다 그리하야 武漢三鎭을 守護하는揚子江第一의 要塞地帶인 田家鎭富池口、半壁山一帶의 要塞는하나도남지안코 完全히制壓되엿다

【〇〇艦上六日發同盟】五日正午馬鞍山頂上에 日章旗를 飜揚한 海軍陸戰隊 土師部隊는 余煙새도업시 散亂히 潰走하는 敵을 急追 一氣에 黃金山麓에 迫到 陸軍 秋富部隊와 協力하야 敗敵에 猛擊을加하야 同日夕刻此를 占領하엿다 一方鏑木部隊도 曹瀆砲臺를占領 이어 唐家濟을 確保 陸軍部隊도 馬家灘附近에 進出 猛攻을 加하고잇는데 敵이 最後로의던 山들을 占領當하야 一擧에 進하는 象山要塞일코 半壁山要塞도 亦是陷落되우에 다시馬鞍山、黃金山의 守護도 潰滅되여 武漢防衛主陣地를 全部일흔셈이다

黃河渡河體勢에

隴海線方面敵大動搖

가 力外에

가, 一隊는 新築차저서 漢口에 進擊하엿는데 空中에 E十六 型戰鬪機大編隊를 發見하고 即時攻擊에向하엿는바 敵은 곳 雲中에로走하고 其中 一機에 黑煙을吐케함으로 이를노첫다 그리고 딴一機가 着陸하려는것을 發見하야即時 此를擊墜시켯다

四、다른有力한 攻擊部隊는 京漢線郾城(周家口西北方約六十粁)信陽間及 花園驛에서 軍需品을滿載한 貨物列車를爆擊,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特히 確山南方의 貨物列車는 爆擊一時間後도 誘爆을繼續하고잇는것이 보엿다

【〇〇六日發同盟】垣曲、風陵渡의一大渡河點으로부터 〇〇進擊을 開始한 皇軍에 脅威된 隴海線方面敵은 그前面에 續續大兵을增援하는 一方益益堅固한 陣地를構築하고 必死的防戰에 努力中인데 方今我軍의 黃河渡河는 必至로보고 벌써부터 大動搖되고잇다

山西北部의 淶源、靈邱를占領

【張家口六日發同盟】北部山西에 蟠居하야 內長城線地區의 攪亂을 企圖하고잇는 第八路軍의 殲滅을 目的으로 行動을開始한 〇〇部隊는 所在의敵을擊滅하고 九月二十七日에는 東西鸚鵡를占據하엿 도〇〇部隊는 二十八日來共匪軍의本據인 淶源、靈邱에進擊을開始하자 群集하는敵을驅逐하면서 疾風迅雷的으로 敵을急追하야 十月一日 淶源、靈邱를 各各占領하고 城頭노퓌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沙河鎭附近敵 代黃溝南方으로遁走

【大同六日發同盟】原口、右丸、伊集院各部隊의 猛攻을바더 敵은 南方에向하야 潰走하고 緊時一帶의 敵約一千及 岩頭村 沙河鎭附近의 敵約五萬은 代黃溝南方山岳地帶에 기피遁入하고잇다

三相會議廢止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從來每週木曜日에 近衛、宇垣、池田의 三相會議를 開催하야 國策遂行에 關하야 協議하고잇섯는바 宇垣外相의 辭職에 依하야 必要가 업서젓스므로 今後同會合을 廢止하고 五相會議의運營에 依하야 그政務遂行의中樞機能을 發揮할方針이라한다

思想界動向注視 保護善導에努力하라

觀察所長會議서南總督訓示

思想犯保護觀察所長 會議席上 南總督의 訓示要旨는如左하다 【...】

思想犯保護觀察制度實施以來 年尙淺한 ... 그實績이 의 ... 管內 最近의 思想情勢를 보건대 事變勃發以來 半島民衆의 愛國的銃後活動은 到底히 ... 가 만하지만은 그裏面에 ... 在한 思想犯罪의 ... 依然 고잇슴은 ... 不許하는 ... 을 思想犯의 保護 ... 하는者 ... 特히 ... 時局下에 잇서서 ... 反 ... 國家的思想의 ... 에 ... 活動 ... 憂慮不 ...

고 ... 思想界의 動向을 注視하야 思想犯罪 防止에 努 ... 하는 바이다 ... 에 對한 ... 使命 ... 保護觀察 ... 은 ... 依하야 ... 要望하는 바이다

(判讀難)

自治政府組織等 民族自決案議決

슬로바키아民族大會서

【치리나(체코)五日發同盟】슬로바키아民族獨立運動은 漸次激烈化하고잇는데 五日슬로바키아州北部치리나市에서 開催된 슬로바키아人의 民族大會에서는 最近주데텐問題로 辭職한 호자前首相의손으로 成案된 民族自決案을 審議可決하엿는데 그內容은如左하다

一、슬로바키아民族의 獨自性을 承認할것
一、슬로바키아自治政府를 組織할것
一、슬로바키아語를 公式國語로 承認할것
一、슬로바키아立法議會를 創設할것

佛財政全權案 上院을通過

【巴里五日發同盟】佛國上院은五日午後三時十分 同日朝下院에서 通過된 財政全權法期日延長案의 審議에 入하야 달랏듸에首相으로부터 政府의 財政方針에 關하야說明이잇슨後活潑한 討議가 展開되엿는데 採決의結果 賛成二百八十票 反對二十一票의 壓倒的 大多數로써 可決되고 午後四時三十五分散會하엿다

파시스트大評議會 六日夜부터開會

【羅馬六日發同盟】十月一日을期하야 開會하기로되엿던 파시스트 大評議會는 못슬리니 首相의 뮌헨會議出席으로 말미암마 延期되여잇던바 六日夜부터 開會하기로 決定 外交問題 議會制度改革問題等 重大議題山積하야 今回의 파시스트大評議會는 자못注目된다

匈稅關吏隊越境 췌코警備隊와交戰

체가通信社의報道

【프라하五日發同盟】少數民族問題로 췌코 匈牙利兩國의 關係는 惡化되고잇는데 五日체가通信社의 發表에依하면 匈牙利稅關吏의一隊는 同日췌코、匈牙利國境때 侵入하야 췌코國境警備隊와衝突 交戰後 擊退되엿다고한다

長沙兵工廠서 職工過勞로爆發騷動

【石家莊六日發同盟】確實한情報에依하면 洛陽東方의 鞏縣兵工廠은 今年一月 國府의 命令에依하야 諸機械及 一千의 職工全部를 모두湖南省長沙에 移轉하야 作業을開始 三月부터 長沙에서 作業을開始 爆彈을 製造하고잇섯는바 國府의 指示한 一定數量에 達하지아니하므로 晝夜兼行作業中 去九月末 一職工의 過勞로因한 不注意로 大型爆彈에 點火하야 爆發되엿다 工場隊는 大破 技術職工의 死亡者 百二十餘名의 負傷者百三十餘名의 大慘事를惹起하고 爾來 技術員職工의 逃亡하는者 續出하야 復舊의 餘望이업다고傳한다

敗將宋哲元 桂林서病으로靜養

【香港六日發同盟】支那側情報에依하면 事變發端의首領인 第二十九軍將宋哲元은 健康을害하야 軍事行動때문에 廣西省桂林의僞居에移轉하야 病氣靜養에힘쓰고잇다한다 또當時 宋과同行 北京市長인 秦德純도 目下桂林에잇다고傳한다

萬太口西方高地 河北省埠平을占領

【北京六日發同盟】五臺로南하야 進擊中의 新見部隊는 萬太口(埠平東方約四키로) 西方高地에 布陣한 一千의 敵에對하야 四日午正때부터 攻擊을開始 밤에도니고 攻擊을 續行하야 五日 此를擊破하야 同日午後五時 드듸어河北省 西部省境의 埠平에 入城하엿다 이戰鬪에서 敵의 遺棄死體는 約三百이엿다

福州邦人居留區 南臺區에大火災

【台北電話同盟】厦門外人側에達한情報에 依하면 十月二日午前四時 福州市閩江南岸의 日本人居留地區인 南台區에 大火災가發生하야 日本人所有家屋 其他의權益은 全部灰燼에 歸하엿다

過般來 湖南省의衡山(衡陽北)에서 靜養中이든바 最近衡山附近이 軍事行動때문에 騷然하므로

市當局은 火災原因으로서 漏電說을公表하엿스나 各所에散在한 日本人家屋이 同時에 炎燒된點으로考察하면 計畫的의 放火라고볼수잇는데 支那側은 日本軍의來福說等의 流布에依하야 極度의不安에 陷하고 一部市民은 避難을 開始하엿다 이南台區에는領事館 海軍武官室 小學校等이잇다

外蒙肅淸峻烈

힘탄의文相毒殺

【新京六日發同盟】過般毒殺된前陸軍大臣데밋드將軍이죽은後外蒙革命分子의 巨物로서 有名한現文部大臣힘탄의는 트로키스트의烙印을받고드듸어毒殺되엿다고傳하야 外蒙內部의 情勢는物情騷然한바잇다한다

불元帥自殺說

【東京電話同盟】蘇聯極東軍司令官블류헬元帥는 張鼓峰事件以來 스탈린과의關係에 險惡의度가 益益甚하야져서 投獄說등이 傳하고잇던바 六日某所에達한 情報에依하면 五日午前 莫斯科에서 自殺하엿다는說이잇다 但新情報의出所가 不確實하므로 眞僞는 不明하다

隘口街陷落切迫

南昌、德安方面敵大動搖

【〇〇山上에서 六日同盟特派員發】我星子攻略各部隊가 去八月三十日 東孤嶺을 中心으로 廬山의義勇軍 殘敵에依據하야 꾸준히 抵抗을 試하던 頑敵에對하야 決然히 行動을 開始 熱風이 부러오는 百三十度의 酷熱과 或은 車軸을 떠내려갈듯한 豪雨를 무릅쓰고 가진 苦缺之을 忍耐하야 猛攻을 加한 以來 이미三十有五日 여제 我軍의 力戰苦鬪는 成果를 거두게되여 旺盛한 戰鬪精神은敵이 難攻不落을 자랑하던 堅陣을 逐次占領 著著戰果를 擴大하야 敵이最後最觸하던隘口街前面의 主要陣地는 周到且果敢한 我攻擊에 依하야 次次로 攻略되어가는 놀라운 戰果를거두어南

麥酒瓶아구리가튼 隘口街路突入도 目睫에 切迫하야 敵은 南方으로 向하야 退却의氣色을 보이고잇다 其間我前面의敵은 實로 二十八個師에 達하는 二十餘萬으로 槪算七千二百이 遺棄死體만도 收容된 戰傷을 合하면 그三倍가되는 놀라운

方要害南昌、德安方面의 敵으로 하여금 失色케하고 全軍에亘하야 動搖의色이 濃厚한것은 덥흘수업는事實로 이제는 我部隊의 最後의 一擊에依하야 隘口街의 陷落은不遠으로 期待된다

服役中應召者에 特赦를奏請할方針

【東京電話同盟】今番事變에 際하야 檢察當局에서는 國民兵役의 義務를 다하게하기위하야現在 刑期服役中의 應召者로서假釋放의 條件에 適合하는 者는 假釋放의 恩典을 맛게하고 또假釋放의 條件에 適合치 안혼者라도 그罪質이 惡質이 아니고 또刑期도 比較的 短期인 者에 對하여서는 檢事가 特히 刑의 執行을 停止한後 應召시킬方針을 取하고잇는데 後者의 刑의 執行停止에 依하야 應召한者는 現在〇〇名으로 今後凱旋한 者에 再次囹圄에 拘하야 殘餘의刑期를 服役시킴은 國家의 立場上 看過하기 어려우므로 今後 凱旋하는者에 對하야는 特赦를奏請할 方針을 取할터이다

鹽野法相談

應召受刑者가 凱旋한 境遇에그 身分取扱에 對하야 適當한 方法을 여러가지로 考究하고잇섯든바 달리 適當한 救濟方法이 업스므로 特赦를 奏請하기로된 것이다 그러나 特赦는 恐懼하 옵게도 大權에 關하여잇스므로 此를 奏請함에잇서서는 情狀其他를 充分히 考慮하지안흐면안 된다 따라서 受刑中의 應召者 全部에 對하야 特赦恩命을 奏請할수잇는것이나 엇는지는 아직 不明하다

人事·集會

◆朴泰源氏(咸興産業組合理事)六日入事次來社
◆吳重燮氏 京城商工會議所議員立候補人事次來社

南總督招待 松平貴院議長等을

南總督은 六日午後六時 官邸에 目下入京中의 松平貴族院議長 光永電通社長을 招待 晩餐會를開催하엿는데 一行은 同七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하는李王職雅樂演奏會에 臨席하엿다

大野政務總監 藥草園落成式에臨席

大野政務總監은 六日午前十時半 總督府發自動車로 開城에向發 城大藥草園落成式에臨席後 附近을視察하고 午後五時頃歸京하엿다

夕刊後市況 六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三三·三	三三·三四
釜山			三三·三五
群山			三三·三六
木浦		三三·三七	三三·四六
下關			三三·六
名古			三三·三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棉花	六六·〇	
福井人絹		一四·五
橫濱生系	八二·〇〇	八二·〇〇

肺患相談室

肺病은治療됩니다

사람이 肺病에 걸렷다하면 死刑宣告나 바든것처럼 悲觀해서 藥과 器械만으로 病을治療하려고 한다 그것은 잇기로 無効한 藥과 器械를販賣하기도하고 여러가지 廣告로 弱한 病人을 誘惑하는 商人에 만히 詐欺師가 아모리거짓말을 하여도, 藥장사가 아모리 甘言利說을 내거리도 속어서는 안됩니다 結核菌을 죽여서 肺病을 當場에 治療하는 藥과 注射와 器械는 아직 世界어데서도 發見되지 못하엿습니다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가므로써 治療됩니다. 若草가 맹동하는 土壤, 清澄한 물, 淸潔한 空氣, 풀고르조이는 陽光, 自然의 草根木皮 거기에는 肺病者를 救할 偉大한 慈愛의 손이 펼처잇습니다.

그릇된 養生法

治療할수잇는肺病이 왜안낫는가? 그것은 貴下의 養生法이 잘못되엿기 때문입니다. 貴下는 日光療法을 잘못하고 잇지안습니까, 自然을 防害하는 藥과 器械를쓰고 잇지안슴니까 물은 좋은 空氣는......

正當한 療法

肺病으로 알는이는 只今곳 『朝鮮日報で見た本下さい』라고 써서 藥書로 左記의 寄贈을 보내주시요. 釋迦님의 金言을 基礎로해서 正當한 治療法을 가르친 松永佛骨師著『治療の原理』와 藥草療法 『光明のあたへ』의 二冊을無代로보냄니다 速히 어가리침에 依하야 肺病을 退治하시요......

肺患 必讀 診斷常識

당신은......

●저녁수척해가지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 안는가
●三十七度一二分의熱이每日午後부터 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몸이무겁고 胃腸도나쁘고 食慾不進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 어깨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 안는가
......이것은 肺病初期의 症狀입니다......
●기침이 만어지고 담에 때로血痰이 섞이지나안는가
○貧血과 衰弱이 더하고 顏色이 나빠지지나안엇는가
●每日三十八度가 차운 熱이나지 나안는가
○頭痛, 不眠, 喀血, 泄瀉, 便秘 胸痛가튼 苦痛이업는가
......어것은 肺病의 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恨歎마시요 正當한 療法으로

無代進呈

肺病治療의原理

(目錄)

●結核菌과그傳染
○結核菌의保有者
●結核菌의天然免疫
○왜肺病이되엿는가
●釋迦의金言
○肺病은반드시낫는다
●結核菌을죽이는藥이잇는가
○大自然의품속으로
●治療의原則
○信仰에對하야
●藥의藥用方法
○水療法의方法
●日光과空氣
○安靜療法
●藥養療法에對하야
○喀血의原因과止血法
●發熱의原因과解熱法
○鎭咳法과祛痰法
●盜汗과그療法
○不眠과安眠法
●泄瀉와便秘療法
○脈搏에對하야
●肺病은全身病이다
○療養生活者의注意
●肺病과和漢藥
○누구나採取할수잇는藥草
●家庭에常備하는藥草
○野菜와果物의藥効

一以上一

上記內容의 『肺患治療指導書』와 藥草療法을公開한 『光明のあたへ』 二冊을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 冊보내라고써서 左記로葉書로보내면 肺患退治의弘願에 依하야無代進呈함.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電話布施二四五·振替大阪三三五

本報全南支社
光州府明治町五丁目(前ゴルーフ塲)
長電話七六七番

清血排毒强心劑
海草精
適應症 ...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藥用クレーム これだけは 代用品なし
アモンパパヤ
여드름 주근깨 기미 色黑
잘빠진다! 速히낫는다
어떠케하던지本品아니고는! 이라고팬의定評
論보다證據
手더어서기별하시는분에 見本으로詳細한理由와効能을試驗해주시오三錢切手
게進呈합니다 파파이酵素와아루므른應用의 專賣特許料國產의最高級品입니다。百貨店、藥店、化粧品店、小間物店、雜誌社代理部에 엿슴니다。
○アモンパパヤ一號一圓半。二號(强度)二圓
○藥用パパヤ洗粉四十錢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粉末 パパヤ洗粉

秋季 特別大賣出 市價三分之一(某外國商館融資處分品引受整理)
時는金이다 싸선 安心
無代進呈써-비스
(1)二十圓以上...萬年筆
(2)三十圓以上...靴
(3)五十圓以上...洋服
★注文하시려며는
◎代金引換注文은內金으로註文額의三割以上拂込하는분에限하야取扱하며內金업는代引註文은絶對謝絶합니다
◎前金註文은送料不要 代引은註文主가 金四十錢負擔하실것
◎送金方法은小爲替또는振替東京二四一番으로送金하십쇼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丁目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正確時間 米國製 WALTHAM 十ヶ年保險付
瑞西製 高級腕 新三味
クロームサルオウ(御用品)
クロム側懷中(クサリメタル付)
クロム側腕卷(皮付)
十八金HK腕卷(皮付)
タローム側ウオルサム懷中
十六型米國製クサリ·メダル付

百五十萬火田民의 保護指導策을確立

從來、取締整理方針緩和、良農으로定着

林政課의 基本的調査完成

密林의漂浪者에 福音!

문명된 현대에 살고잇스면서도 그문화의 은혜를 조금도입지못하고 밀림속에서 임야를 불살려서바틀이루워 근근히 목숨을 이어나가는 가엽슨 화전민(火田民)에대하야는 비단그들의화경(火耕)으로 말미아마 해마다 황등할수록 미림(美林)이 황폐되

여가는것이 치산치수와 지방개발상 중대한 문제일뿐더러 산중을 표랑하는 그들을 선도정착시켜서 양농(良農)으로 맨드는것이 통치상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되여잇다

이리하야 총독부임정(林政)당국에서는 이미 지난소화칠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상류지대에 걸치 북선개척사업(北鮮開拓事業)을 착수하야 십만일천정보 삼만사천여호의 화전민에 대하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그 지도 보호를하고잇스나 이사업구역을 제한 전조선국유또는민유림에 허터저잇는 수만호 화전민에 대하야는 아직 그기본조사도되여잇지안흔 형편이어서 그동안 이조사를 예의진행중이든바 드디어 얼마전 전조선화전면적과 화전호수의 조사가 완성되며 그들을 종래와가치 단순히 취체정리하는것으로부터 한거름 더나아가서 지도보호하는 계획이 확립되엿다

이기본조사에 의하면 전조선의 회전민호수는 이십칠만륙천삼백팔십사호에 그 인구가 일백오십만이천십칠명의 막대한수에 달하여잇고 그화경면적이실로 사십삼만 칠천이백이십오정보에 달하여잇다 이가운데 국유임야속에잇는 회전민은 십이만일천이백오십호에 그인구가칠십일만칠백사십팔명으로 그화전면적이 이십만구천구백사십구정보에 달하야잇스며 민유임야속에잇는 화전민은 십오만오천삼백삼십사호, 칠십구만일천이백칠십구명으로 그화전면적이 이십만칠천이백삼정보에 달하야잇다

國有林火田民에겐 現地耕作地를容認

生活改善과矯風敎化에注力

전조선국유림야안에잇는 화전민중 북선개척사업에 의한것을 제한나머지 십만팔천팔백팔십호정보의 회전을의지하고사는 팔만칠천팔십이호 사십구만육천백팔십사명의 화전민에 대하야는 십오년계획으로 오백만원의 예산을세워 지도보호에 나아가게될터인데 종래와가티 그들이 의지하고잇는 화전에 조림(造林)을해나가서 그들을 구축하는만하지안코 현지경작을 그대로 용인하는원측을 세워서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에 의하야 무료로대부하는 형식을 취하야 그들이선량한 농민으로서 안정된때에는 그대로그화전을양여하기로하고 또필요에 따라서는 매호당이정보를 표준으로 경작지를분급하기로 되엿고 만일그들의 화전이 국토보안과 영림상에잇서서 특히폐경(廢耕)을 할필요가잇슬때에는 그화전에대신할다른 경작지를 주기로 되엿다 그리고 화전민의백호를 표준으로하야 산농지도구(山農指導區)를설정하고 또 산농공려조합(山農共勵組合)을 조직해서 농법의개선 부업의보급조정 고리대금과 간상의구축이며 생업자금의 저리융통 생산품의공동판매를 하게할터인데 특히생활개선과 교풍교화에힘써서 화전민도역시 황국신민의인식을 가지도록할터이라고한다

民有林內火田民은 三分하야保護指導

十五年計畫豫算千二百萬圓

전조선 민유임야에잇는 화전민은 십오만오천삼백삼십사호에 칠십구만일천이백칠십구명으로 그화경면적이 이십이만칠천이백삼정보에달하는데 여태까지는 겨우 작년도부터 삼림주사를배치하야 화전의확대를 방지하는 소극적취체정도에 지나지안핫섯든바 금후한거름 더나아가서 화전의지반붕괴(地盤崩壞)를방지하고 화전민의 안착안정과 영농방법의 지도를하며폐경에의한 이지(移住)의지도 조성을하게되엿다 직현재의 민유

七色虹의 恍惚境

千古秘藏의朝鮮雅樂

昨夜府民館의演奏會盛況

동양전래의 궁중아악(雅樂)으로 홀로 조선에서만 가장훌륭히옛자최를 와전하게 유지보존해오기로 세계에 이름잇는 리왕가(李王家)의 아악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육일오후칠시 부민관에는 남총독을 위시하야 내외의명사, 학자고관등 각방면의 인사가 장내에 넘치도록 모이어 천년래로 유연히 흘러내려온 고전정서를 맛보기에 긴장한가운데 조용히 귀를 기우려 촉주며불이 밝게비치인 이밤의 부민관은 기피 고전의 신비로운 꿈속에 잠기엇다 정각에 조전(篠田)리왕직장관으로부터 간단한 소개인사가잇슨후 먼저 아악부원들이 아악기로 정숙히 국가연주가잇슨다음 본순서에들어가 천년전 신라조(新羅朝)의봉황음(鳳凰吟)으로부터 연접허막이열리고 닷기니 구중궁궐에고히고히 간직되여궁미진 어떻이현묘한 선률은 거문고에 생황에가야금, 대금, 피리, 단소, 경, 종등, 각양각색의 관현악기를 통하야듯는이의심금에는 칠채의무지개를 그리는듯 청중은 황홀히취하야 옛시대의 꿈속에 잠기어버리엇다

는신라조 고려조(高麗)그러고리조(李朝)에 들어서는 오백년전 세종(世宗)때의것으로부터 고종(高宗)때의것 까지 열두조목의 아악을 연주하는중 세조(世祖)때의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의 관현악에이르러서는 화평성대를 표현한유아한악곡에 모두마음젓 후에 넘치는듯하엿다 끄트로 처용무(處容舞)의 찬청스럽고도 절도된춤으로 장내는 다사눈을번쩍뜨고 귀를 기우려 한번더 옛날의풍격을맛봄을 음미하고 어어서 아악부원들의『우미유까바』연주로 십시 성황리에홍막을다치엇다

(사진은 아악의 연주광경 하는 리왕직 조전장관의 인사)

時局座談會 無慮一萬回

京畿道管內時局認識狀況 都市보다農村이徹底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사변이래 관하각서로하야금 시국좌담회(時局座談會)를열어 일반에게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기에 힘써와는데 구월말일까지에 좌담회를 연회수는 무려일만회에 출석한 인원이 팔십오만명을 돌파하야 만흔효과를 거두엇다 그런데시국인식은 도시보다도 농촌이더욱철저한점이 만흔사실에 비추어 어때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온 좌담회를 아프로는 도시에서도 빈번히열어 도회인의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로되엿다

길師範敎授의 朝鮮視察感想

파반 조선교육상황시찰과각반의 시찰을마치고나감만주(滿洲)시찰중인 독일『길』고등사범학교교수『홍굴켈』박사는 다음과가튼 편지로 남총독(南總督)에게보내엿다

소생의 조선여행은 진실로유쾌하얏습니다 소생이 이번조선방문하는중 제일인상깁흔것은 일본정신의 철저와 교육보급의 현저한것을 관하보그것이외다 조선체제는 단지일이엇스나 그동안 일본의강렬한 농물려성정을보고 경탄하얏습니다

自衛團과監視所 五日부터는休息

【平南文社通】평남자도 아조종식되엿스므로 그가각처에방역을위하여 조직되엿던 방역자위단(防疫自衛團)과감시소(監視所)는 오일부터 휴양(休養)하도록위생과에서 통지를발하엿다

종딱

중석도귀할사!금강사봉지도 초개로구나

○ 도굴당보다도 의영한 대회사 작패가 심하다니, 이건 전잔통개가 봉두막에 올나안즌격이아닌가

○ 일견(一見)금강산도 이제는 캐케묵은수작, 마땅히일파(一波)금강산이『세기(世紀)의꿈』이로다

○ 금강산맥도 조회중의 재조는 본래말할것도 업거니와

○ 그속에 숫석을 숨겨둔 비밀을모집어낸 사람재조도 제법인데 그런고보니 거정이라…

○ 푸념이 무스푸넘이란 말이가 하누님의 처분이 잇슬뿐이지 건방지게。

잔소리말고 빗이라도 내가지고 한시바삐 보아나두세…

曆

▲十月七日(金曜)陰八月十四日 ▲干支 壬申 ▲日出 午前六時三十三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一分 ▲日入 午後六時十分 ▲晝間 十一時三十六分 ▲月出 午後四時四十六分 ▲月入 午前四時十分 ▲滿潮(仁川) 午前二時二十分과 午後二時五十五分

今日天氣 晴一時曇

류마치스와 神經痛이根治된다

아픈것이速히낫는데놀란다

神經痛류마치스로 手足의매디매디와 頸肉, 顔面, 肩胛, 肋間, 坐骨神經이 아프던지 부어서困難한분 이런慢性이던急性이던간난게有效한 家傳藥이 잇습니다 永年의慢性과 惡性의 류마치스와神經痛의難病者가지금까지만히全快되얏스므로 오랜名藥입니다 이名藥은內服散藥으로一兩日에便이조금變하야 黑色의排瀉便이잇고 後는가신듯이 아픈것이 업서지고 再發치안음으로 놀라게됩니다 說明書養生法은 기별하시는대로 送呈합니다 又 도無藥者에게는實費로드립니다 三十日分二圓五十錢 十五日分一圓五十錢 送料五十錢 代金引替로도보내드립니다

東京市本鄕區森川町百十一番地 寺山院頌藥所 振替東京四九五四番

廣告

學生美展入賞決定

榮譽의本社社長賞은養正의張旭鎭君獲得

본사주최 제이회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는 드디어 오는팔일부터 그상회를 막을 열게되엿는데 전조선방방곡곡에서 출품된 오백여점중에 고르고골리서 입백팔십오점이 입선된것은 이미 보도한바와가거니와 이입선작품중에도 월등하게뛰여난걸작이 만허서 특선(特選)과 우선(優選)을 결정하엿는데 초등부특선(特選)이 이점 중등부특선이 사점으로 특선의영예를어든 작품이 한게여섯점이엇스며 우선(優選)은 초등부에 사점 중등부에칠점 합계십일점으로 심사결정되엿다

이들특우선작품중은 그야말로 장래조선미술을 수맛벌그엣날과가치 세계에 빗나게할 선발된조선의 젊은 예술가들의 수입품(秀逸品)이다

이와가티 기라성(綺羅星)파가튼특선 우선작품중에서도 양정중학(養正中學)오년생인 장욱진(張旭鎭)군의『공기놀기』서양화한폭이 단하나인 본사사장상(社長賞)의 영관을어더서 그광양의 머리를 온독소사차란한 막채를빗내고잇다 영상된 특선 우선은다음과가다

特選

元正喜	齋洞尋小	三年	누나와동생	自由畫
張在晝	光熙尋小	六年	風景	自由畫
(以上初等部)				
張旭鎭	養正中學	五年	공기놀기	西洋畫
黃畢順	進明高女	四年	秋色	刺繡
孫英奇	徽文中學	五年	靜物	西洋畫
李景熙	中東學校	四年	兒友	西洋畫
(以上中等部)				

優選

崔彩模	牧島尋小	六年	風景	自由畫
金胤經	光熙尋小	六年	風景	自由畫
金允鎬	光熙尋小	四年	體操	自由畫
張喜任	光熙尋小	六年	魚釣	手工
(以上初等部)				
金文植	京畿中學	五年	風景	西洋畫
南相任	同德高女	四年	風景	刺繡
元義淑	祥明技藝學院	四年	洋傘	技藝
張基澤	培材中學	四年	靜閑	西洋畫
林完圭	養正中學	五年	風景	西洋畫
石壽星	鏡城中學	五年	風景	西洋畫
姜鎰星	海州東中學	五年	自像	西洋畫
(以上中等部)				

社長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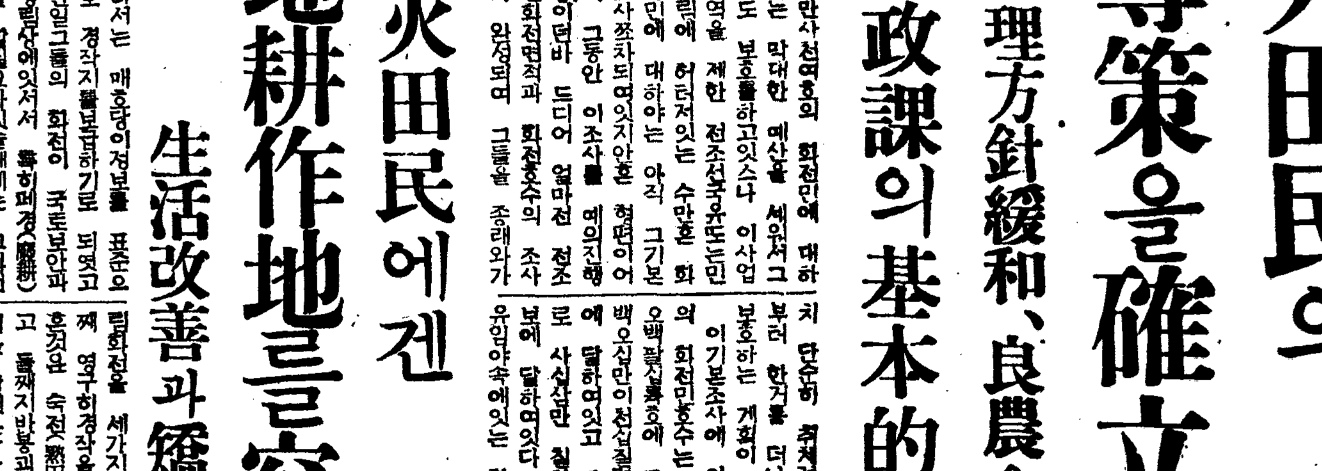
中等部 張旭鎭 (養正)

日、伊直通電話 開通祝賀交驩

【東京電話同盟】칠일부터 맹방(盟邦)이태리(伊太利)와 아국사이에 직통전화가 개통하게되엿스므로 그전날밤인 육일오후일곱시반부터 축하교환(祝賀交驩)을 하게되엿다 일본측은 동경중앙전화국의 식장으로 영정(永井)체상『아우릿치』대사등비롯하야 체신관계자다수가 렬석한가운데 우선『로ㅣ마』로부터 들리고 뒤니어『에이케·스카라』극에 따라『기미가요』의 장중한 음악이 들려오고 이태리국가와 원기잇는『파시스트』당가가 전파를타고 멀리『로ㅣ마』로 전하여갓다 그다음 오후일곱시사십분에 영정체상과『벤네』이태리 체상『차노』외상과 근위(近衛) 수상과의『메세ㅣ지』교환이잇섯다

夕張炭坑慘變 被害者三百餘名

【夕張電話同盟】석장천룡항(天龍坑)『까스』폭발사고는 칠일오후여섯시경에 시체인양개시 이십이명 피난생존자 백사십칠명 합계사상자를 통틀면 삼백삼십 이명이다



興奮된熱戰裡에 六階級覇者決定

神宮拳鬪大會終幕

拳鬪朝鮮의 一年間鬪爭의 總決算인 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拳鬪選手權大會 最終夜는 六日午後六時半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열리엇다 榮譽의選手權을目標로 勇敢한 六十九中에서 지난이틀동안에 추려진二十名精鋭들의 熱戰인지라 一千觀衆으로하여금 처음부터 끗까지 極度로興奮케하엿다 이리하야 別項戰績과가티 各階級의 覇者를決定한後 同大會拳鬪部委員長高元勳氏로부터 優勝盃와 賞狀을授與하고 때는午後九時五十分 連三日間盛況이든大會의幕은 閉하다시엇다 【寫眞은優勝者】

【풀라이級】(準決勝)
梁政模(東拳) 判定 韓一男(青拳)
李福成(朝拳) 判定 金仁業(東拳)

【빤탐級】(準決勝)
金景秀(東拳) 判定 鄭永鎬(東拳)
金善基(青拳) 判定 梁泰潤(東拳)

【페더ㅣ級】(準決勝)
金明錫(朝拳) KO 李時龍(青拳)
▼…第一라운드二分十九秒
鄭福壽(東拳) KO 金泰植(東拳)
▼…第一라운드四十一秒

【라이트級】(準決勝)
馬相浚(東拳) 判定 李在[illegible](青拳)
朴敬善(青拳) KO 金明福(青拳)
▼…第一라운드一分二十四秒

各級決勝戰

【웰터ㅣ級】
李致應(青拳) KO 崔昌[illegible]

【미들級】
張[illegible](東拳) TKO 宋榮勳(青拳)
▼…兩君모다 미들級에는 맛지못할 [illegible]인듯하다 張君은 [illegible]로하는 右「스트레ㅣ트」와 右훅크로 攻勢에 나아가니 技術的으로未熟한 宋君은 反則을 거듭하다가 鬪志업서 이따금「맷트」우에 안저도니「그록기ㅣ」되여 끗끗내 苦戰타가 第三라운드一分五十一秒에 宋君TKO로 敗하엿다

【풀라이級】
梁政模(東拳) 判定 李福永(朝拳)
▼…出場選手二十名中에서 選拔된 兩勇士의 對戰은 劈頭부터 緊張味넘치는 가운데열띄 서로[illegible]만을 엿보더니 [illegible] 第一라운드에는 [illegible] 第二라운드에는 [illegible] 드에는 金君은「카운터ㅣ부로ㅣ」는 [illegible]디ㅣ에 [illegible]하야 伯仲之勢를 보이며 第三라운드에드러가서도 一進一退의 白熱戰을演하다가 僅少한포인트의差로 [illegible] 勝하엿다

【빤탐級】
金景秀(東拳) 判定 金善基(青拳)

【페더ㅣ級】
金明錫(朝拳) 判定 鄭福壽(東拳)
▼…人氣의焦點이된 此一戰! 金君이 連勝하나? 鄭君이 雪辱하나? 이는 半島拳鬪界의 最高水準에잇는 兩君의 對戰인만치 觀衆의期待는 이에集中되엿다

【라이트級】
朴敬善(青拳) KO 馬相浚(東拳)

…神宮蹴球第二日…

咸興의猛擊에 信川軍遂屈服

普成對永生의中等決勝과 全普專對咸興戰은今日

第十四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蹴球選手權大會 第二日은 六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이날第一戰인 世專對大豫戰은 第三次延長戰에도 二對二同點으로 抽籤에依한바 世專이 幸運의籤을 뽑앗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뒤이여열린 一般部第一回戰인 咸興對信川의 게임은 別項戰績과가티咸興軍이 六對一로信川을一蹴하엿다 이리하야 七日午後一時에는 中東의失格으로 決勝戰에드러간 咸興의永生과 普成中學이 中學部의 覇權을 다투게되엿스며 同午後二時半에는 滿都蹴球팬의 興味와期待를 당뿍이끄른 全普專對咸興의 熱戰이 展開될터인데 此一戰이야말로 事實上의 決勝戰으로도 볼수잇는 待望의 게임이다 信川을 가볍게이긴 咸興은 全普專에 比하야 遜色업는堅陣을 編成하고잇서 打倒普專의氣勢를 보이고잇다면 全普專은 中央舞臺를代表하니만치 그責任은 重且大하다아니할수업스니 果然戰運은 어느陣營에빗날것인가? 이날은 觀衆으로하여금極度로 熱狂케할것이다 다음으로 午後四時에는 遠來의昌寧軍對春川軍의 一般部準決勝戰을 擧行하기로되엿다

咸興 6 信川 1

【前2－1 後4－0】

黃海道 信川蹴球團對 咸興蹴球團戰은 同日午後三時十七分부터金在弘(主)片茂英、李齊禾(線)三氏審判下에 信川킥어프로 開戰된바『원사이드께임』으로咸興軍이大勝하야準決勝에드러갓다

【咸興】 金審得 車淳澤 吳義植 李芳根 盧[illegible] 李明龍 朴[illegible] 洪[illegible] 黃[illegible] 洪[illegible] 趙[illegible]

GRLRCLRRCLL
KFFHHHWIFIW

【信川】 姜[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洪[illegible] 李[illegible] 林[illegible] 元[illegible] 李[illegible] 鄭[illegible] 尹[illegible]

	計	前	後
【信川】	21	13	8
【咸興】	27	14	13

女看守募集

一、年齡十八才부터二十二才까지

一、學歷 小學校卒業程度以上

右希望者는十月七日午後二時까지自筆履歷書持參來社하시압

朝鮮日報社庶務部

今日의運動

▲蹴球＝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蹴球選手權 大會第二日 中等部決勝 永生中學對普成中學 午後一時 ◇一般部準決勝 全普專對咸興蹴球團 午後一時半 昌寧蹴球團對春川蹴球團 午後四時以上全部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二十錢 學生小兒十錢)

▲럭비＝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高專럭비ㅣ大會第一回戰 京城高工對京城商業 午後五時 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朝夕生凉!

只今부러服用하시요

天下名藥 百補丸

三伏더위에 시달린몸을 하루밧비 補하시오 느지면 大病될 念慮가잇습니다

肺病、不足症、早老症、慢性胃腸病、廢陽等의不治의大病도 조고마한 虛弱으로 부터 始作됩니다

虛弱이過度하면百藥이無效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絶!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소等이 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부인자궁병냉병 경도부조대하증에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中部版

金浦米穀統制 組合總代會

【金浦】지난칠일 오전열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김포군미곡통제조합(金浦米穀統制組合)총대회를 개최하고 초지의 사항을 협의결정하얏다

一、昭和十四年度 金浦米穀統制組合 收支豫算의件
二、昭和十四年度 賦課金徵收方法의件
三、生產米改良及 販賣統制의件
四、組合長專決事項承認의件
五、昭和十二年度收支決算報告의件

永登浦電話線擴充 明春까지完成豫定

單式交換機를複式으로改正 市外回線數도十一線을增設

【永登浦】영등포우편소구내의전화가입자수는 구월말현재 이백육십여명에 달하야 지난삼월말현재수 이백삼십사명에 비교하면 근사개월간에 이십팔명의 증가를 보이 공업도시 영등포의 발전함을 증하는것이나 연래의 현안이든 전화시내통일은 단행하야 통신망(通信網)의강화를 요망하고잇는이때 동우편소의 전화교환사무는 불완전하기 짝이업서 기계의 고장속출과 시외통화의 지체등으로하야 관공서의 공무집행상 또는 각회사 일반시민등에 대하야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잇는중인바 현재 동우편소와 경성시내와의 시외회선수(市外回線數)는 단지십회선으로 평균일일 통화수 구백회를 분배해보면 한회선에 얼마간 완화될뿐아니라 시외통화도 민속히 련락될것으로 일반은 기대를 크게하고잇다한다 … 미산(梶山)우편소장은 그간수차 체신국과 절충하여 보앗든바 요지음에와서야 겨우 량해를 엇게되여 현재 사용중에잇는 단식교환기(單式交換機)를 복식(複式)으로 개조하는동시 회선수도 열한회선을 증설케되엿다 …

進明高女運動會

시내창성정(昌成町)에잇는 진명고녀(進明高女)에서는 오는구일(일요일) 오전아홉시부터 동교내에서 추기대운동회를 한다는바 일반의 참관을 바란다고한다

議政府神明神祠 秋季例祭를執行

【楊州】의정부(議政府)신명신사(神明神祠)의 추기례제는 지난사일부터 오일까지 양일에 걸처 공민회생다수가 참석하야 성대히 거행하얏다

楊州郡에서도 銃後後援強化行事

【楊州】사변이 장기전에 이름에따라 군에서는 오일지날은 군회의실에서 도로부터 파견된 원법상(元法常)씨 저곡대위(猪谷大尉)양씨의 사변에대한 강연으로 총후후원의 절실한 느낌을 주엇스며 주간행사는 다음과갓다

一、祈願式 十月九日午前六時三十分神明神祠參拜
二、慰問挨拶
三、講演會開催
四、小國民의教化
五、座席展覽의觀覽

陸軍病院慰問 銃後強化第一日

【京南】총후후원강화주간 제일일인 오일경남에잇는 용산육군병원(龍山陸軍病院)에는 아침부터 일반의 위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엇는데 오전열시반에는 애국부인회총재궁전하(愛國婦人會總裁宮殿下)께옵서 황송하시게도 전상장병에게 과자를 어하사하옵시는 … 하심을 밧드러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장대리로 영원학무국장부인과 민자작부인 윤자작부인 기타동회원 십오명이 동병원을 방문하고 어전달하얏는데 오후두시반에는 또한 남총독(南總督)부인이 근등(近藤)비서관을 대동하고 와 한시간반동안이나 병실마다 다니며 전상병에게 간곡한 위문사를 남기고갓다

李王職職員도 後援週間에動員

총후후원강화주간에 수응하야 이왕직(李王職)에서도 직원이 열중기간하야 순서대로의 행사를 실시하기로되엿다 또오는팔일에는 용소전상유가족은 창경원에 무료입장케하엿다한다

中樞院參議 傷兵病慰問

중추원참의 한규복(韓圭復)씨등칠명은 야세계서기관(野世溪書記官)을 데리고 륙일오후한시반에 중추원을 대표하야 룡산륙군병원에 차저가서 상병병(傷病兵)을 위문하고 금일봉을 증정하엿다한다

◇—秋收에바쁜農夫—◇

軍事講演開催

【大田】충청남도(忠淸南道)에서는 총후후원강화주간중(銃後後援強化週間中)조선군(朝鮮軍)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야 도내각지에서 군사강연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

人影이稀薄하자 寒心쉬는遊廓街

彌生町極度로閑散

【京南】황색감찰(黃色鑑札)이부흔 인생항로의 저주자유곽(遊廓)에나타난 사변이후의수자=못사나이를 상대로 젊은계집들이 손님을 눈물로마지하는 부내미생정(彌生町)내의경영의유곽은 작년칠월 지나사변이 발발한이후부터 회향유자저드는 손님이 급격히감소하야 한산하기짝이업다는데 날이갈수록 쇠슬해가므로 이곳대좌업조합측은 극히불안에빠저잇다하며 전파가티 마음대로 손님을못마지하는 창기들의한숨은 더한층 기러만가고잇다한다

又新小學校增築 永登浦初等教育機關

四萬六千圓으로北陸組에落札

【永登浦】부내영등포에잇는 우신소학교(又新小學校)는 사만육천원의 예산으로 북륙조(北陸組)에 락찰되여 지난사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얏는데 금번에신축되는것은 보통교실다섯 의정실하나 한개다 동교는 동포주민의 유일한 조선인초등교육기관으로 년부년증가해가는 학령아동 수용에 진력하고잇든중 종래부터 협착을 늣겨오든 교사를 금번에확장하기로 되여 이부제(二部制)를 실시중에잇스나 이것이 완성되면 이십사학급이되여 학령아동수용도 기분간완화될것이라한다

無料染色講習 普光町空地에서

【京南】장기항전에 감하야 경성부에서는 부민생활에 긴축절약을 한써장려시키기위하야오는 시월상일부터 부내사개소에서 무료염색강습회를 개최키로 되엿는데 경남관내의 개최장소와시일은 다음과갓다

時日 十月十三日부터十五日까지

梨泰院町梨光學院 土幕村子弟教育

現在三百餘名을收容

【京南】부내이태원정(梨泰院町)한미떠잇는 호박리(瑚珀里)란동리는 토지 빈민부락으로서 그날그날을 겨우호구해가는자이인데 자기네들이 빈곤과무식으로 일반의 천대밧든 것을 철저히 늣기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떠케해서라도 문명을 어더주고저 주머니돈을 떨어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리광학원(梨光學院)을 세웟는데 원래는 아동이 삼백여명이나너머 밧듯도록 금일에 이르러 일반은 전기학원원들의 열성을 감격하며 칭찬이 자자하다

場所 梨泰院町四三七

京畿金剛의名勝地 鐵磨山城을探勝

本報長湍支局主催

【長湍】천고마비하고 홍엽이 바야흐로 붉어저서 가을의정치를 최하에 경기금강산의 명승지 철마산성(鐵磨山城)을 탐승하고저 본보독자를 일반으로 단원 이십명은 예정대로 구일오전칠시반에 출발하야 단풍이 우거진 원통사 개종의 반면 파묘사 대흥사 고산성의 경을 탐승하고 지난일오후에 단원일동 무사히 돌아왓다고한다

(사진은 鐵磨山城探勝團員一同)

臨時邑會開催

청주읍에서는 래일일오전부터 읍회의실에서 추가예산심의를 하고저 림시읍회(臨時邑會)를 열기로되엿다한다

強盜與犯植事件 現場을詳細檢視

기보=청주군 북일면 장양리(淸州郡北一面長陽里)에서 발생된 살인강도사건에 대한 공판관계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팔일 동법원 박판사(朴判事)급 전중검사(田中檢事)가 현장검시를 하엿다한다

神饌畓一反步에 四石三升四合의所出

京畿道農事試驗場에서

【富川】지난오일 오전열시부터 부천군 소사면오류리(富川郡素砂面梧柳里)에잇는 경기도농사시험장(京畿道農事試驗場)에서는 신찬답에서 수확한 벼를 계량하얏는데 일반보에 사석삼승사합의 소출을 보앗다한다

蘇萊小學運動會

【素萊】부천군소래공립보통학교(富川郡素萊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칠일 추기대운동회를 개최하얏는데 학부형 기타 관람자 다수가 모혀 성황을 이루엇다한다

仲買人을指定 穀物市勢를嚴守

富川郡農會의新計畫

【仁川】부천군농회(富川郡農會)에서는 해마다 수확기를당하면 팔만농민을 상대로하야 곡류매매에 간상의악역이잇서 무지한농민에게 그피해를끼치는 일이만타하야 전년은 전시하에잇서 간상의악역을 방지시키기위하야 금년도의 농산곡류의매매는 그농회에서 중개인(仲買人)을 지정하야 지방상인에게 매매케하며 군농회의 복리를 도모하리라한다

玄濟明氏獨唱會

八日仁川公會堂에서

【仁川】인천상업학원(仁川商業學院)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으로 현제명(玄濟明)씨의 독창회를 오는팔일 산수정(山手町)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바 일반의 만흔 내청을 바란다고한다

生鮮價格도昂騰

【仁川】십일만부민의 조석식탁에 오르는 생선의 가격이 근래 폭등하야 일반의 생활에 적지아니한 위협을 주고잇다한다

精神異狀의青年 栗木에縊首自殺

【漣川】연천군적성면답곡리(漣川郡積城面沓谷里)에사는 모청년은 수년전부터 정신이상이생겨서 평상시이상한 행동으로 모든사람들에게우숨을 바다오든바 지난사일밤열두시경에 집에서 잠자다 가집안사람들이 잠자는틈을타서 집뒤산밤나무에다 목을매고 자살하엿다 이웃사람들의말을들어보면 평상시병세가 발작할때는행동을 우수웁게하지만 똑똑한정신이 들때에는 일상자기의 신병을비관하고 잇섯슴으로 이번에도 자기의 신병을비관하고 자살한것이라한다

新築家屋激增 京南一帶發展

【京南】남산주회도로의 개통을 목전에두고 경남일대의 발전이 란 전광석화(電光石火)와가튼데 금번 개통될도로에 좌우는 교통은 말할것도업고 풍광이 명미한산넘게로 신축가옥이 나날이늘어가고잇서 지난 구월중순부터 금일까지 이태원정(梨泰院町)만 조사해보건대 십여호에 달하는 대발전이라한다

京南一帶種痘

【京南】용산경찰서에서는 오는 십이일 오전아홉시부터 서빙고정회사무실(西氷庫町會事務室)에서 추기종두를 시행한다는데 그의요지는 다음과갓다

京南種痘施行日割及場所

種痘施行日 十月十二日午前九時부터

檢痘施行日 十月十八日 同

場所 西氷庫町會事務室

嘉會洞齋洞桂洞町會

中產以下를相對로 人事相談部를特設

和睦을爲主로良風美助長

삼청공원(三淸公園)이 생기기전까지 취운정(翠雲亭)은 북부장안사람들의 유일한 조선산보터로 이야기여서 재동파가회동의 한 대단한 인끼가잇서 작년봄부터 가회동(嘉會洞)재동(齋洞)계동(桂洞)은 그 동리에 사는이들 이 서로 어데서어 … 예부터 재동은 어떠한 명문거족과 부호명사가 만흐며 지식계급이 만히사는데로서는 장안에서 일 등이다 …

기자는 이정회총대 우종관(禹鍾觀)씨를 계동우종관씨자택으로 차저 장래포부를 드릿더니 다음과가티말한다

서울전형위원사이에서 총대후보자로는 박흥식 김성수 한상룡제씨와 제가선정되엿다가 결국은제가 그중에서 가장한가한 사람이라고해서 제가이동리에와서살기는 십년가까이 되나 병으로 출입이전연업섯든 관계로 동리사정을 잘알수업서 … 가장 민중적으로 나아가려고하는데 결국은 어떠케든 이 정회를 잘 운영하야 동리사람들을 잘 위하고 … 인사상담부(相談部)를 특설하야 공동미속(共同美俗)을 장려하겟습니다

우리洞里通信

往十里街道에 撒水를해주오

(사진은 총대우종관씨)

내려오는 황토한동리가되도록 힘써볼가 합니다 지금생각하고 엇는것은 이것뿐이올시다 그 외에도 무슨일이든지 마음대로 잘되겟지요 …

못된바람은 수구문밖으로 분다는속담과가티 면해전만해도광희문밖 왕십리가도는 눈코를뜰수업을만큼 먼지가 업서지지는안코 … 그러나 엇쳐 먼지만키로유명한곳이니 여간 포장공사를해놋키로서 …

(新堂町 金生)

호텔쓰레기桶 빨리處置하라

우리동리 광화문통에는 ××호텔이 우뚝소사잇스니 외관으로보면 그럴듯하지만 그호텔때문에 큰걱정이잇다 그것은그 쓰레기통이 문제이다 …

(光化門通 町民一同)

讀者出題歡迎

▲內容 각기동리마다 변해가는사정, 고처야할것, 희망하는것 새로운소식등 여러가지의 소식을보내되 인신공격은 피할것

▲標式 편지엽서로하되 주소성명을 분명히쓸것

▲取扱 본사에서 적당히할것

▲適當處 본사社會部 우리洞里通信係

仁川

玄濟明氏獨唱會

(助演梨專教授 劉美馨、閔元得傳)

時日 十月八日(土)午後七時半

場所 山手町公會堂

主催 仁川商業學院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京南

第四回近畿少年蹴球大會

▲時日 十月十六、十七 二日間

▲場所 西氷庫小學校運動場

▲申請期限 十月十五日까지

◇主催 城南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몸서리칠만큼 악취나는 대하증으로 되기 전에 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V—78.

뜨거운해볏이 내리쪼이는 요새에는 건강한분이라도 더위에파례가는때임으로 부인병으로 고통을밧고 게신분에게는 더욱 쫓시더워를 타게 되며 몸의약파 병세도 증가하게되는 시절임으로 어떠에 병환근을뿌리빼버리사 추수의가을에는 幸福의 매실을 엇게하여주십시요

더구나 여러분이 깨닷고게시는 모든 부인병의증세는 자궁속에서 병균이 활동하고잇는 때문에 그런고장을 일으키고잇스니 그곳에잇는 병균을 죽이고 진물과고름이 흘러나오는『대하증』을 업새면 씨슨듯이 모든증세는 낫게됩니다

帝大病院과 민간에서라도大學病院과 똑가튼효과를엇게되야 부인병이곳낫는와세돈球

醫學博士 河合畯策

하도 여러藥에속다가 德澤으로 수태하여

(元山) 張慶愛

계집손서에정가 근치되는 부인병신약

明治座 松竹キネマ

十月六日(秋夕)興行 自6日至10日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 子をめぐる二人の女 / ニュース短篇 / 戀の挽歌

東洋劇場

第一劇場

大毎ニュース 無敵海軍陸戰隊 或る女の道 赤ちやん

映畫は日活 偕樂館

悦ちやん萬歲 マルクス一番乘り 鬪鍍錢

桃花劇場

不良青年 テンプル軍使 回歸線に唄ふ 讀賣ニュース

長篇小說 薄命 (113)

韓龍雲 作 / 鄭玄雄 畵

결혼 十

그들은 남쪽으로 도리서 해수욕장이 보이지 아니하는곳에 이르렀다

『자 우리는 실례하겟습니다 구경을 하십시오』

정식이가 순영이와 정순이에게 말을하고 옷을 버스려할지음에 대철이가 무엇을 생각하는듯하더니

『가만잇게 내가 저기좀 다녀오겟네』

하고 다른집을 처서 오던길로 가더니 여러가지 실과한끄럼이를 사가지고 왓다

『우리는 수영이나 하지마는 거저 한저서 구경하시랴면 심심들 하실터이니까 이것들이나 잡수시며 구경하시지오』

하고 순영이와 정순이 아페 놋는다

『에그 웬걸 이러케 사오섯서요 일부러 또가서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한꺼에 이러나서 치사를하고 바덧다 순영이는 대철이가 특별히 다정한 사내이라고 생각하얏다 그리고 실과꾸럼이를 둘의아페 노면서 도특별히 자기아페로 다거 놋는것가티 생각하얏다 순영이가 보기에는 정순이가 실과를 정식이가 사오저 아니하고 대철이가 사온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듯하얏다 아닌게 아니라 정순이는 그것이 조금 샐쭉하엿다

『네나 머어란』

정순이는 실과를 순영이 아프로 미러놋는다

『가치먹자』

순영이는 도로 미러 놋는다

『나는 그런것 조아 안는다』

정순이는 눈을 다른데로 돌린다

사내들은 어느새이에 옷들을 벗고서 수영복만 입은채로 바다를 바라보고 섯다 그들은 해벼테 끌어서 시꺼머케 된 몸동이에 모든 근육이 여간 발달되지 아니하얏다 순영이가 보기에는 정식이는 키가 조그마한것이 조금 만조하야 뵈엿스나 대철이는 적당한 키에 알마진 체격 이엇다 그들은 아모리수영복을 입엇지마는 그래도 순영이는 바루보기가 부끄러웟다 그러나 드러내노코 보는것보다 더욱 자세히 보앗다

『저 서선생님 체격이 조그마하고아래위 모착한것이 아주 잘되엿지?』

정순이는 우스면서 순영이를 도라본다

『그리라 참 조선 사람은 적어야 쓰다는데 적고도 야물떡지게 생겻구나』 순영이는 정순이 뜻을 알고서 비위를 마추엇다

『우리는 사내를 키큰것 조찬터라 키크고 숭겁잔한 사람 업다는 말이 안잇니 또 수수땡이 조히가며 노픈것처럼 몸맵이 호리호리한것도 사내답지 안터라 그러치?』

『그래 너무 큰것도 안되고 너무 강은것도 안되고 또 너무 적은것도 안되고 거저알마진것이 조치』

하는 순영이는 대철이 체격이 알맛다는 말을 하고지펏스나 정순이 뜻을 거스르는것이 될뿐아니라 형의를 살까버서 말끗흘 웃음으로 흐려버렷다

사내들이 노픈데로 부터 바다를 향하야 『풍덩』하고 거꾸로 뛰어 드리가서 한참동안 보이지 안는데 순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게 불래엿다 조곰잇다가 그들은 물위로 솟치더니 헤엄들처서 바다로나간다 그들은 여러가지로 헤엄을 친다 엎드려서 치는것은 물론이고 자저저서도 치고 여프로도 치고 안저서도 서서도 외카짓을 다하야서 오리갓기도 하고 고기갓기도 하엿스나 한경장파에 마음대로 떠다니는것이 신선가티도 뵈엇다 순영이는 대철이만을 보앗다 이따금 정식이를 보는것은 대철이와 비교하기 위하야 보는것 이엇다 순영이는 수영을 잘하는것이 남자의 영레로도 뵈이고 며(美)로도 뵈엇다 순영이는 대철이가 한룸못 까지라도 갓다왓스면 조켓다고 생각하얏스나 한편으로는

朝鮮神宮體育大會前記

軟式庭球

斯界의 男女俊銳 二百四十七組가 動員

明日、專門校對抗戰으로開幕

全日本軟式庭球界의 覇權을모조리차지하고잇는半島의俊銳들의 總出動할第十四回朝鮮神宮奉讚體育大會軟式庭球選手權大會及各道對抗戰은明八日午後一時부터열리는大學專門學校對抗戰으로서그첫幕을열고 九日、十四日、十五日、十六日、十七日、十八日의七日間 京城運動場、府廳コート等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出場組數는 實로 二百四十七組에 達한다

◇…大學專門對抗戰에는 世專、高商、高工、醫專、延專、高商、藥專、齒專、法專等九個校가 參加하엿는데 그中 優勝圈內에 드러갈學校는 延專、普專、高商等 三校라고보다 延專은 尹錫元、朴正雲組와 李基三、李仁俊組等의 鐵壁的陣容으로 編成되엿스며 普專은 申東徽、洪性熙組와 金甲壽、裵東勳組等으로 陣容을 자랑한다면 高商에는 孤獨選手 安井、張日煥組가잇서 延專、普專、高商의三巴戰을 豫想케한다

◇…中等各道對抗戰에는慶南、全北、平北、慶北、平南、忠北、全南、京畿等八道代表가 參戰할터인데 여기에는 昨年의覇者京畿道가 優勢하리라는것이 一般의豫想일것이나 平北、慶北의嚴然한存在는 京畿로하여금 樂觀을許치안는다 京畿는 裵正의金在厚、張在潤組와 金在謙、魯炳瑞組가 主戰鬪士인데 慶北에는 大邱慶林의 申宅善、權重文組가잇스며 平北에는 新商의 金榮喆、大西組、信聖의崔、金組、寧邊의 金日秀組等 中等界의 一流名將들만으로서 戰前부터 京畿를威脅하고잇다

◇…女子中等各道對抗戰에는 京畿道가 斷然優勢를보이고잇서 女商의金玉秀、成榮淑組를비롯하야 淑明의鄭姬永、金主福組 그리고 進明의徐廷五、金榮子組等女子庭球界의 第一線의 强豪들로서組織되여잇스니 慶北、平南、咸南、黃海 慶南等에서 어데까지 肉迫할것인지가 注目處이다

◇…一般男子各道府對抗戰의豫想을 抄하려면 무어보담도 京城府의水準이 地方에比하야 誠等함으로 오히려豫想의興味를더는感이업지아라 京城府代表를 살펴보면 崔永生、鄭士連組、黃甚成、權寧仁組、瀨戶、朴龍善組、吉仁漢、矢田組、洪承杰、李鍾鎭組等斯界의 最先列을거러가는巨星들만이며 地方으로서 中央과 어깨를가티 할만한選手는 平壤의 金泰植、李德淳組、象一浦의 岩佐、木田組、大邱의 崔榮奭、土井組等에 不適하며 平北과咸南에도 相當한實力을가진 金公選手가잇스나 京城府또는京畿道에挑戰하기에는 難色이보인다 以上과가티 大學專門對校戰에 延專、中等道對抗에 平北、女子中等道對抗에 京畿、男子一般道府對抗에京城府를 有利하다는것이 順當한豫想일가하나 勝敗는 때의運이라 뉘란서豫測할수잇스라?

陸上豫想

十二道代表登場

覇權은어데로?

咸興、平南、京畿의三巴戰

陸上朝鮮의 第一章을飾할 第十四回朝鮮神宮奉讚體育大會 各道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十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이며 十六日 十七日에는第七回全朝鮮陸上競技選手權大會를擧行하기로되엿다 十二道中에서 咸北이 時局關係로 出場치못하게되엿슬뿐으로 十一道代表가 登場하야 鄕土에의 榮譽를 짊머지고 奮鬪할터인데 道對抗戰에잇서서는 昨年의覇者咸南을筆頭로 平南、京畿等三道가 有力한 優勝候補로指目되고잇다 咸南은 覇權死守에 가진秘策을 다하고잇다면 京畿는 例年에보지못하던 充實한 陣容을 編成하야 打倒咸南을 부르짓고잇스며 平壤과 京畿에 모두 强味를 보이고잇는 平南과의 『三巴戰』은 道對抗戰의 壓卷을 遺憾업시 發揮할것으로 期待된다 選手權大會에는八、九兩日間 東京서 열린 東西對抗에主力部隊로 參加한 三段跳의 第一人者 金源權君을 비롯하야 李泰義、洪顯文、李章完、朴實寶、李東濬、中村、崔俊根、梁任得等 九勇士가 出場할터이므로 컨디숀如何로는 世界的大記錄을 바랄수도잇다 더욱이 今年度에는 時局關係로 陸上競技로서 이러라할만한모든이 여섯는마금地方의 無名勇士들의活躍이 볼만할것이다

若草劇場에서는、『家庭日記』外一篇

若草劇場에서는 七일부터 가정일기(家庭日記)와 하내정대자랑(大淸內幕大)의 청수차랑(淸水次郞長)을 상영하는데 그리고 「가정일기」 후편에는 입장(入江)다까꼬여사가 배역으로 출연한다고한다 (사진상은 「가정일기」의 한장면 (사진하)는 "사랑의 밤거리"와 "청수차랑장" (淸水次郞長)의 한장면)

病窓語 (二)

乞人

咸大勳

벌서 診察을 바든지 벌서十日 食前食後로 水藥散藥을 먹으나 病의 差度가 업다 그러나 이病은安靜을要하고 飮食物을 괴도록 어예必要한것을 攝取해야한다 하니 내이것을잘못한탓인가?

이제는 몸이 아프나 저녁에 벗이 도문이나 왓기로 그들을 차저갓다가 밤이조금느저 집으로 도라오는길에 光化門通에거리에서 늙은거지 하나를 맛낫다 나히는 六十이가까웟슬 알즌방이 老人이다。

『한푼줍시오 한푼줍시오』

멧번을 웨처도 나는 본체도 안햇다 그러다가 그거지가 멋번을 哀乞하다가 도라섯슬때 나는 문득 『아! 내가 왜이러케 冷淡햇슬가? 이것이 요즘 病的인 神經이 아닌가?』하고는 다시 그를 따라가 一分錢을 던저주엇다 마음이 괴롭지 아라。무슨責任을 버슨것갓다。

바람이 맑다。하늘은 深藍色으로 곱게 개엿는데 별들이 寶石처럼 아롱진다。

電車오기를 기다리노라 얼마나 서잇섯는지 사람들은 安全地帶에 꽤 모여섯다。거기는별 때는 이때라는듯이 連해 여기저기로 돌면서 求乞을 하건만 그들은 들은체도 본체도 안는다 그거지는 하잘것업다는듯이 내가까히와서 힘업시 쪽구리고잇다。

『하루 얼마나 법니까?』

나는문득 그에게 말이 건네고 십헛다。

『구경날은 도圓이나 벌지오 그러치만 다른날은 別로 신통치안어요!』

『어듸사시오?』

『北岳山밋헤 삽지오!』

그때 電車가 왓다。나는車에 올랏다。그도 올랏다。

孝子町終點에서 나려 나는 그와 난호엿다。그는 얼른 보매 퍽 善良해보인다。卑屈스러워 보히진 絕對로 안하다。나는 발길을 옴기며 문득 투르게-녜흐의『거지』란 散文詩가 머리에 떠올랐다。그는 求乞하는 乞人에게 한푼을 못주고 『同志여! 내게는時計도 손수건도 업구려…』하엿다。

그러케생각하니 거지를取扱한 作品이 만타 대체에는 거지를取扱한 作品이 별로 調査해보것은 업지만 어디에 떠오르는것만도 只今말한 투르게-녜흐의 散文詩『거지』가그것이오 안톤·체-홉흐의短篇『乞人』이 그것이오 푸-쉬킨의『아녜-긴』에 나오는 타차-나 가 거지에게 돈을주는場面이 그것이오 톨스토이의 戱曲에 나오는 乞人이 그것이오 일일이 枚擧키 어려운數이다。

元來 革命前로시아에는 거지가만헛고 革命後도 거지가 너무만허 거지를主題로한『人生案內』란映畵까지 만든것이 잇지만 어떠튼 거지라는것은 露文學上에 만히 取扱된題材다。푸-쉬킨 이取扱한 거지는 女主人公『라챠-나』로하여금 失戀의 苦盃를 마섯슬때『나는 平素에 거지에게 내所願이 일우어지다고 거지에게 동냥을 주엇지만』하고(이것은 感興을주엇기때문에意味한것을) 그女主人公으로 하여금 平素 거지에게까지 華麗하하지안흔 그女子의 悲哀와純情을 表現하기爲한것이 그린것이지만 투르게-녜흐 는 거지와 同等의 位置에 서서 아-모것도업다고 時計도 손수건도 업다고하엿다 체-홉흐는 거지의 心理를 그린것으로 그의 心理的으로 거지의 求乞하는 方法을 描寫하엿다。

여기서도 作家는 한개『거지』를 素材로잡어도 그作家의 少年에따라 다르게 取扱하엿거니와 朝鮮처럼 거지가 만흔곳도 世界에 드물것인데 나부터 앞으로 거지-를 作品으로 取扱해보지 못한것이 넘우 素材를 目前에두고 떠것만 차진것가터 다시금 作家들의 눈이 좁앗든것을 탓하고십다。

그러저럭 집에도라오니 時計는 열두시를 친다 다리가몹시 저리고 머리가 興奮이 되는게 아프다。또이밤 不眠症이 來襲하지안흘려나 겁이난다。

불을끄고 누우니 山아래 집들은 모두기픈잠속에 잠기엇다。숨소리하나 들리지안는 靜寂이 어둠과가티 房안을 싸고잇다。몸은海綿처럼 풀린것이 땅속으로 자자드는것갓다。

아프다는 呻吟聲이 自己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온다。밤은점점 기퍼간다。이러밤은 부형이라도 울것가티무시무시하다。아까 그거지생각이난다。두팔을집고 걸어가든 그乞人은 지금어데서 무슨꿈을 꾸고잇슬까?

大覺國師傳

求法巡禮

⑦ 湖岩

義天은 먼저哲宗이 應擧한華嚴法師有誠을 맛나보니 그는宋廷이 이國賓을 마지려고 미리選擇해둔 當代一流의學僧이다。

謙虛한義天은 有誠에게固請하야 師弟의禮를 行한後 華嚴과天台의敎理를 討論하엿는데 有誠이 도리어義天의 志行과才識에對하야 크게歎服하게되엿다。

義天은 有誠과함께 都下의名刹을 歷訪한지 閱月에 그의 素志인 淨源法師에게 就學하기 爲하야杭州로 가기를 請한데 宋帝가이를許하야 主客員外郞楊傑로 伴行케하엿다。

宋京을 떠나 汴水에沿하야 淮泗로해서 揚子江畔의 潤州(今江蘇省鎭江縣)를 지낼새 吳中諸刹이 모다 王臣의 禮로써 迎餞하되 金山(僧了元(佛印禪師)이 床에 안저 절을 바덧다한다。

杭州에 이르러 새로 南山慧因院의 住持가된 淨源法師를 차즈니 淨源이 相見의 晩을 恨하며 반가이 마젓다。義天이 이에 師弟의 禮를 修하고 서로 問答이 잇섯는데 誠投道願하야 前世의 宿緣이 기픈것가티 느겻다。

杭州는 山水도 勝하거니와 淨源以下 諸宗의大德이잇서 모다 法을求하는 義天의 至誠에 感激되어 平日의 蘊蓄을 기울려講討한結果 所得이 만엇다。

그러나 義天어 그네에게 爽快한것은 오히려 더만엇스니 宋廷이 이國賓關係로해서 慧因院에 田土를寄進한 恩典은 莫論하고라도 그저 直接으로한 藏經의贈與와錢財의 喜捨等 有形的援助가 얼마나 만엇스며 그보다도 그가無形的으로 준 그高潔한人格的感化가 얼마나 컷는지 헤아릴수 업는것이아닌가。

翌年秋、慧因院에서 哲宗의 부름을 바더閏一月十三日다시 宋京에 드러자朝見하엿다。哲宗이特히 義天을 부른것은 本國에서 宣宗이母后의뜻을 이여 그의歸國을 表請한때문이다。

義天은 數日留京하다가朝辭하고秀州(杭州東北嘉興縣) 眞如寺에 이르러楞嚴疏主의 塔亭이 頹圮함을 慨歎하야 金錢을 내여重修케하고 四月에다시 慧因院에 드러가 淨源으로부터 經書와 爐拂을바더傳跡의標信을 삼앗다

義天은 淨源을맛나서 華嚴의學識이 일층더增進하게되고 淨源은義天으로해서그 令名이 더욱더 顯揚하게되엿다。

이에 淨源을 辭謝한後 天台山에 이르러 智者大師의塔前에 親筆의發願文을 올려東土에傳敎함을 立誓하엿다 義天이最初杭州에왓슬때 慈辯大師從諫의 台宗經論을 講하고 그後從諫으로부터 手爐如意를 어더受道의標信을 삼앗더니 이에이르러 天台祖師의 塔前에서 立誓까지하엿슴은 義天이그素志를 갑고저함이다。

明州(今寧波)에 이르러 育王廣利寺에차저 大覺禪師懷璉을 보앗다。이보담압서서 汴京과 杭州에서 相國寺의 圓照禪師宗本과 靈芝寺의 律師元照에게 각기禪과律을묻고 特히西天寺의 西天三藏天吉祥에게 西天事情을 詳問한 일이 잇다。

渡宋한지 十四個月동안에 名山巨刹을巡禮하야 問道한 高僧만해도五十餘人에 達한다。그는求法의一方에 힘이 닷는限까지 古今의章疏를 만이搜得해가지고 드듸어宣宗三年丙寅(西紀一〇八六)明州를떠나 歸國하는 高麗使一行과同航하야 月末故國에 歸着하야大歡迎裡에 入京하게되엿다。

海外通信

스웨덴(瑞典)영화비평가가 작년일년동안의 외국영화중에서 선출한베스트·텐은다음과갓다

1、文豪졸라(와-너作品포올·무니主演)
2、우리는바다의아들(메트로作品스펜서·트레시와파-솔로미유主演)
3、大地(메트로作品폴·무니主演)
4、오-캐스트라의少女(유니버-살 디아나·다-빈主演)
5、新婚道中記(콜럼비아作品게리·그랜트와 아이린·던主演)
6、페페려物語(佛映畵사샤·기트리主演)
7、피-터大帝(露西亞作品)
8、王冠의眞珠(佛映畵사샤·기트리主演)
9、偉大한幻影(佛映畵)장·가방主演)
10、地下室(佛作品가방과루이주·베上演)

최근 오년간 미국서 대작이라고해서 프레미아, 쇼-로, 또는, 로-드, 쇼-로일반에게공개하기전 특별시사한일이 전부 삼십회나된다는데, 작품별로보면 다음과갓다

파라마운트社-武器야잘잇거라(게리, 쿠-퍼主演)사랑의凱歌(되-도리하主演)暴君네로(프레데릭, 마-치主演)死傳寃·바다의魂(게리쿠-퍼主演)十字軍

폭스社-카발케-드·戰爭과母性、바-케리·스캐어시카고、勝興、世界는움직인다

유나이트社-카티리女帝·로스챠일드、모던·라잉스(최후의主演)풀드、하리케、

메트로社-크리스티나女王(그레타·가르보主演)·晩餐八時、巨星지그펠드(윌렴포-웰主演)로미오와쥬리엣트(레슬리·하워-드와노-마·쉬-러主演)나는바다의아들(파-솔로미유主演)大地(폴·무니主演)마리·안토와네트(노-마·쉬-러主演)

와-너社-風雲兒일바-스、綠色牧場、한여름밤의꿈、文豪졸라(포올·무니主演)

콜럼비아社-잃어버린地平線(로널드·콜맨主演)

藝術動靜

劇研座映畫部의 名畫鑑賞會

七·八兩日午前十一時부터

서내중학정(中學町)십번지에 사무소를둔 극단극연좌(劇團劇研座)에서는 제이십일회공연을 주석대공연으로하야 춘향전(春香傳)을상연하려다가 극단정세에비추어 다음공연의준비로 밀우고 이번은 동좌영화부주최로 칠、팔이틀동안 부민관대강당(府民館大講堂)에서 추석명화감상회(秋夕名畫鑑賞會)를 열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 매일시작하는시간은오전열한시인바 하로에 세번상영하게된다하며 입장료금은 십전(十錢)이요 상영프로그람은 다음과갓다

一、東京發聲特作 豐田四郞監督 市川春代 主演 "젊은사람"
二、二十世紀폭스社特作 헨리킹監督 로레타·영主演 "라모나"

今年家庭婦人들노리는 天下名山金剛山探勝

그나마貸切自動車로편한행차

지난번의「물노리」대회는 … 일년에 겨우 한번 이 즐거운노리를 올에는 … 으로 정햇습니다 금강산이 조라는 소리를 이제새삼스리 느러놀 … 니까 여러분의마이 … 서 일만이천봉의 려기에 … 경입니다。

떠나는날 十月十五日밤

떠나기는 시월십오일날밤十一時五분 경성역을떠나 이튼날아침 금강으로가게됩니다。천대차를 타게되니까 이튼날아침 때는 벌서 내금강의 풍광이 황홀하게 아페벌려질것입니다。

구경할곳은 內外金剛

장정남자와달라 아모리명산구경이래도 진땀이흘르게까지 거름을 걸을수는 업습니다。그래서 자동차길닷는데는 모두대절자동차로 차를탑니다。그리고는 볼곳은 다보게되니 호화스러운행차를 할수잇습니다。그나마 내외금강을 다봅니다。

회비는매인 二十二圓

회비는 한사람아페이십이원입니다。그리고 정원이 자동차 드라이부가 되노아 이 이상의 인원은 곤난하니까요。

도라오는날은十月十九日

서울서 시월십오일날떠나 그이튼날 내금강에내려서부터 자동차로 내외금강을 구경한다음에 도라오는길은 동해북부선으로 안변으로해서 도라오게됩니다 이러케해서 닷새가걸리는데 경성역도착은 십구일아침일곱시이십분이지요

신청기한은十月十二日까지

신청기한은 떠나는 사흘전 십이일까지 회비를 가지고 본사에오서서 신청하십시요 한번신청하신뒤에는 사정이잇서 못가시게되서도 회비를 돌려드리지안습니다。

주최 朝鮮日報社事業部

라디오 JODK

對談 (七日午後九時) 뻔뻔한女子 申鼎言

때는 이조성종(成宗)조입니다. 당시심원(沈源)이라는이가잇섯는데 글공부하고 또 말솜씨도 조흐며 그성질이 또한 호방(豪放)하야 매양 조흔풍경을 차저 잘놀고 을드니 하로는 주구월에 소요(逍遙山)단풍구경하고 귀두에 한소녀이를맛낫습니다 그는무상(南海)으로친정에 도라가는길이인데 중로에서 부랑배를만나 혹 무슨봉변을할까 두려워한다하므로 서뭇그리면는 두라 남매행세를 하자하고 중로 한여관에서 묵게되엿는데 의외로 그여인은 여적(女賊)으로 밤사이에 그주인집의 물건훔쳐 잠적햇슴니다 그래서 심은 공범으로몰려 고초를하고 후에 다시 그여자를 맛나서 여러가지곳와를 격근 파란만장한 풍류남아의 일대기(一代記)입니다

소나타G長調作品七十八 (七日午後八時)

바이올린과 피아노 (브람스作曲)

바이올린 上野久子 피아노 竹井春子

브람스는 一八三三년에 독일『함부르크』에나서 一八九七년에 세상을 떠난근대의 위대한작곡가의 한사람입니다 그는 그부친『요한·야곱보·브람스』의 훈육(薰陶)을바더 어려서부터 그음악의 천재를 발휘하게된것입니다 一八四八년 그가十五세때『피아노』의 초연주(初演奏)회를열어 악단에『데뷰-』하고 후에『슈-망』의 지우(知遇)를 어더 더욱지奏器를 개척하게되엿습니다 그의악풍(樂風)은 장대고아(莊大高雅)하고감정표현이 유현복잡(幽玄複雜)하야『베-토벤』『빠하』와 일맥상통하는바잇스므로 흔히『브람스』까지처서 三B의특장이라고 합니다 一八七七년『캄브릿지』대학은 그에게 명예박사의 학위를 보내엿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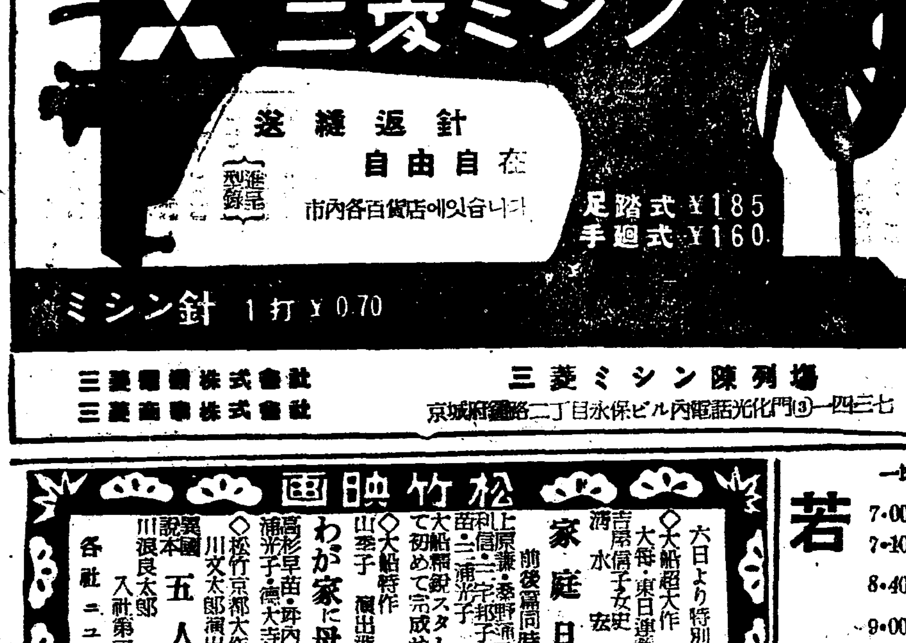
라디오 프로그람

七日 (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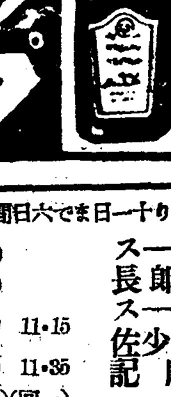
◇午前七時二〇分(城)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竹筍豆腐"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獨唱과 一重唱 (레코-드)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蹴球試合實況『朝鮮神宮奉讚蹴球大會中等部』-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어야기『少年軍』丁洪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듸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各道의자랑』(三)全羅道篇 李完應
◇同八時 빠이올린과피아노 소나타G長調作品七十八브람스作曲 빠이올린 上野久子 피아노 竹井春子
◇同八時三〇分 新民謠 一、五峰山 二、오돌독 三、노돌江邊 四、도라지打鈴 五、密陽아리랑 六、늴리리야 朴榮喆 張一朶紅 奚琴 李忠善
◇同九時 野談『뻔뻔한女子』 申鼎言 短簫 崔壽成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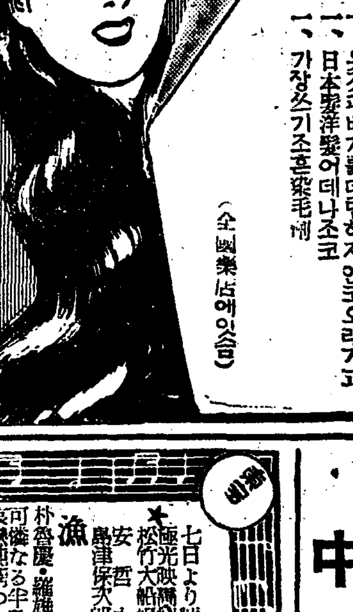
八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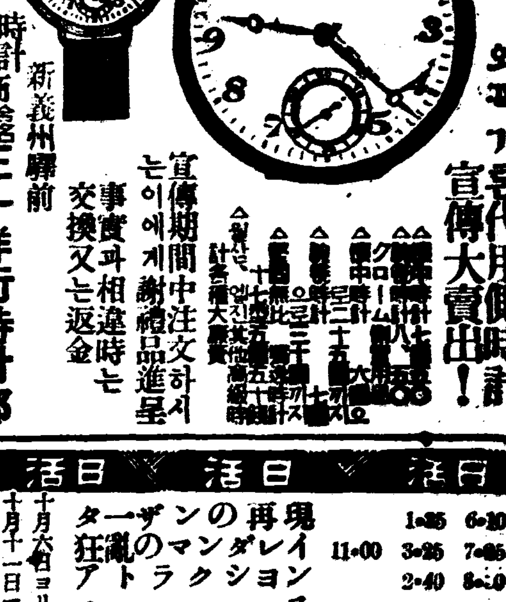
◇午前七時二〇分(城)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西洋人의家庭生活과名日』 普成專門 安浩相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合唱과管絃樂(레코-드)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謠 一、齊唱 가을 二、齊唱 새때 三、齊唱 허재비 四、獨唱人形 五、齊唱 분수 六、齊唱귀뚜람이 七、九、齊唱자장가 八、獨唱은행나무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獨唱 金在仁 피아노 伴奏 金尾榮洙 童謠會
◇同六時三〇分 講演『가을의天體』 延禧專門 韓仁錫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平)講演『仲秋明月과故事』 朴尙僖
◇同八時 歌謠曲 一、曠野의달빛 二、달밧어린沙漠(劉) 三、港口의十五夜 四、港口에서港口로(朴) 五、바람든열두치마(劉朴) 伴奏 DK管絃團 劉鍾林 朴鍾燮
◇同八時二〇分 秋夕新月-京城錦町孝昌園濟川亭舊址로부터中繼-
◇同八時五〇分 歌曲 一、界面頭擧 二、弄 三、界樂 四、編 金花香 李月色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二〇分 라디오小說『별만의아는秘密』-李達作 金玉映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九) 李完應



三菱電機株式會社
三菱商事株式會社
三菱ミシン陳列場 京城府鍾路二丁目永保ビル內 電話光化門⑶一四二三

カゴメケチャップ 가고메케찹

和洋食에 처서 맛잇게 잡수십시요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志らが赤毛染 るり羽
곱고옷한黑髮!
生生한 젊음과어여쁨
이야말로『るり羽』가가진魅力
特長
一、洗髮을안해도곳드릴수잇고
一、藥은조선게湯에녹고
一、洗髮할수록色艶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가고
一、日本髮洋髮에더나조코
一、가장쓰기조흔染毛劑
(全國藥店에잇슴)

仁川支局電話二九〇番
金時計
외파가든代用側時計 宣傳大賣出!

(カタログ進呈)
宣傳期間中注文하시는이에게謝禮品進呈
事實과相違時는交換又는返金
新義州驛前 時計商 出物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松竹映畫 マネキ
六日より特別封切 家庭日記 前後篇同時上映 吉屋信子女史原作 淸水宏作品 上原謙·佐分利信·三宅邦子·高杉早苗·三浦光子共演
大船超大作 わが家に母あれ
松竹京都大作 五人男
各社ニュース

若劇
大淸水每呼南家鄕 朝ニュース 郎次長 少佐記
7·00 3·45 12·40 / 7·10 3·55 12·50 / 8·40 5·25 2·20 11·15 / 9·00 5·45 2·40 11·35

平壤 大劇 爆破光線 漁火 牧場物語 東寶超大作

中央館 大每ニュース 大岡怪童·橘喜久子主演 と ろ 八 女 日 記 / ボートの八人娘 / 村上喜劍

黃金座 日活 現れる再びターザン 狂亂のマンダレイ アトラクション ニュース 十月六日ヨリ十月十一日マデ